国際社会文化研究所紀要　第11号（2009年）

한국(韓國)의 소반(小盤) 공예(工藝)

朴　炫国[*1]　Jonah Salz[*2]　朴　銓烈[*3]

韓国の小盤工藝

Soban (Tableware) Technology of Korea

PARK Hyun kuk[*1] Jonah SALZ[*2] PARK Jeonyeol[*3]

人間は，昔から道具を使って物を作ってきた。昔から，韓国人が作って使ってきた物の中で歴史性や文化的な面で重要なのが小盤（小さいお膳，食事用の机）である。小盤は韓国人のオンドル部屋文化と食文化を連結する輪の役割をしてきた。小盤は単純に機能的な役割にとどまらず地域や時代，用途や使用目的にしたがって多様な形態を持っている。特に韓国の小盤は海州盤，忠州盤，羅州盤，統営盤に四分され，それぞれ個性を持っている。この文はこの四ケ所を現地調査して得た資料を中心に，小盤が持った韓国人の意識と精神世界そして小盤のその自らの特性を調べた。

From ancient times, human have manufactured tools and goods for their living. From old times, the tableware for food is important among the things which Koreans have been made and used in the view of history or culture. Tableware played a link between Korean ondol room culture (an underfloor-heating room) and food culture. The dishware is not limited to the functional role, but has various types according to territory, times, and usage. Korean tableware can be characterized into four major sets: Haeju, Chungj, Naju, and Tongyoung. Based on the fieldwork survey materials of three places, I looked into the consciousness and mentality of Korea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ableware and selves.

1. 머 리 말

인간(人間)은 다른 동물(動物)과 달리 도구(道具)를 만들어 사용(使用)한다. 이 도구(道具)를 만드는 기술(技術)은 한 세대(世代)에 끝나지 않고 사회(社會) 문화(文化) 속에서 전승(傳承)되고 계승(繼承)되면서 다양(多樣)한 형태(形態)로 변화(變化)와 발전(發展)을 거듭해왔다. 특(特)히 인류(人類)가 도구(道具)를 사용(使用)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증거(證據)는 175 - 150 만(萬) 년(年) 전(前) 아프리카에서 화석(化石)으로 발견(發見)된 손쓴 사람(Homo habilis)이라고 한다.[1] 인간(人間)은 오래전(前)부터 주변(周邊)에 있는 돌이나 나무 등(等)을 이용(利用)하여 생활(生活)에 필요(必要)한 도구(道具)를 만들어 사용(使用)하여왔다. 인류(人類) 역사(歷史)를 구석기(舊石器) 시대(時代), 신석기(新石器) 시대(時代)로 구분(區分)하는 근거(根據) 역시(亦是) 인간(人間)이 돌을 사용(使用)하여

＊1 龍谷大学国際文化学部
＊2 龍谷大学国際文化学部
＊3 中央大学校 文科大学

필요(必要)한 도구(道具)를 만들었다는 사실(事實)이다. 어느 곳에서 사는 어느 민족(民族)이나 자신(自身)이 처(處)한 환경(環境)과 생활(生活)에 맞춰서 필요(必要)한 생활(生活) 도구(道具)나 생활(生活) 용구(用具), 의식용(儀式用) 도구(道具)나 의식(儀式)의 대상(對象)까지 만들어왔다. 이 글에서는 한국(韓國) 사람들이 나무를 활용(活用)하여 만든 생활(生活) 도구(道具) 가운데 소반(小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반(小盤)은 나무를 재료(材料)로 장인(匠人)이 만든 생활(生活) 도구(道具)이다. 소반(小盤)은 온돌방에서 좌식(座式) 생활(生活)에 적합(適合)하게 만들어 사용(使用)해온 것이다. 한국(韓國) 사회(社會)가 6.25 전쟁(戰爭)과 1970 년대(年代) 이후(以後) 급격(急激)하게 근대화(近代化), 서구화(西歐化) 되면서 아파트의 보급(普及)과 생활양식(生活樣式)의 변화(變化)로 좌식(座式) 생활(生活)에서 테이블 중심(中心)의 의자(倚子) 생활(生活)로 바뀌게 된다. 온돌방에서 식사(食事)나 손님 접대(接待), 의식(儀式)을 진행(進行)할 때 주(主)로 사용(使用)되던 소반(小盤)도 테이블이 보편화(普遍化)되기 시작(始作)하면 점점(漸漸) 자취를 감춰 현재(現在)에는 거의 사용(使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반(小盤)을 만들던 사람들도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없다. 이 글에서는 소반이 생활필수품(生活必需品)이었던 당시(當時) 소반(小盤)의 제작(製作) 기술(技術)은 어떠했는가? 소반(小盤)은 어떤 종류(種類)가 있으며 언제부터 사용(使用)해왔는가? 소반(小盤)의 유무(有無)에 따라서 한국인(韓國人)의 생활(生活)과 사고방식(思考方式)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러한 점(點)에 초점(焦點)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2. 명칭(名稱)과 의미(意味)

소반(小盤)은 한자(漢字) 이름이고 생활(生活)에서는 보통 상(床), 또는 밥상, 반(盤)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도 이 세 가지 용어(用語)를 사용(使用)하고자 한다. 한반도(韓半島) 남부(南部) 전역(全域)에서 소반(小盤), 반(盤), 밥상, 상(床) 등(等)으로 사용(使用)되는데 지역적(地域的)인 편차(偏差)는 거의 없다. 나무를 다루어 소반(小盤)이나 가구(家具), 문창호(門窓戶) 등을 만들거나 목(木) 조각(彫刻)을 하는 사람은 소반장(小盤匠)이나 소목(小木), 소목장(小木匠)이라고 한다. 이에 비(比)하여 나무를 이용(利用)하여 집을 짓는 사람은 대목(大木), 혹은 대목장(大木匠)이라고 하였다.[2] 소목장(小木匠)이 자주 인용하는 속담(俗談) 가운데 소목장(小木匠)은 대목장(大木匠)을 할 수 있어도 대목장(大木匠)은 소목장(小木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말은 사실(事實) 여부(與否)를 떠나서 소목장(小木匠)의 기술적(技術的) 자긍심(自矜心)이 담겨있다.

소반(小盤)은 기물(器物)을 받치거나 음식물(飮食物)을 올려놓는 작은 규모(規模)의 도구(道具)이다.[3] 소반(小盤)은 한국(韓國) 사람들이 고대(古代)로부터 식사(食事) 때 밥이나 반찬(飯饌) 등(等) 먹거리를 올려놓고 식사(食事)를 하던 생활(生活) 도구(道具)이다. 이것은 식사(食事)뿐만 아니라 의식(儀式)을 거행(擧行)할 때 제물(祭物)을 올려놓기도 했으며 손님을 접대(接待)할 때에는 차(茶)나 다과(茶菓)를 내어 놓기도 했다. 일반적(一般的)으로 밥을 먹을 때 사용(使用)하는 것은 밥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손님에게 차(茶)를 접대(接待)할 때 쓰는 것은 찻상(茶床)이라고 한다. 소반(小盤)은 원래(元來) 1 인(人) 용(用)이 원칙(原則)이었으나 생활(生活) 습관(習慣)이 바뀌고 복잡(複雜)해지면서 일인(一人) 용(用) 밥상에서 2

인(人) 용(用) 찻상, 4 인(人) 용(用), 6 인(人) 용(用) 교자상(交子床) 등(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소반(小盤)은 생산(生産) 지역(地域)에 따라서 해주반(海州盤), 충주반(忠州盤), 나주반(羅州盤), 통영반(統營盤) 등(等)의 이름이 사용(使用)되었다. 그밖에 만든 재료(材料)에 따라 행자반(杏子盤), 괴목반(槐木盤) 등(等)의 이름이 있다. 소반(小盤)은 형태(形態)에 따라서 책상반(冊床盤), 반달상, 전골상, 12 모반, 8 모반, 여섯 모반, 연잎반, 외다리소반, 삼각반(三脚盤), 개다리소반, 호족반(虎足盤), 마족반(馬足盤), 죽절반(竹節盤), 회전반(回轉盤) 등(等)이 있다.<사진 1> 그리고 소반(小盤) 표면(表面)의 색(色)이나 표면(表面) 처리(處理) 방법(方法)에 따라서 주칠반(朱漆盤), 흑칠반(黑漆盤), 자개상 등(等)이 있다. 이들은 생산(生産) 지역(地域)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의 솜씨나 사용(使用)하는 나무, 생활(生活) 습관(習慣) 등(等)이 반영(反影)되어 있다. 또한 사용(使用) 용도(用度)에 따라서도 어상(御床), 수라상(水刺床), 주안상(酒案床), 다과상(茶菓床), 장국상, 독좌상(獨坐床), 엄족반(掩足盤), 겸상(兼床) 등(等)이 있다. 대략(大略) 이러한 명칭(名稱)은 약(約) 60 여 가지에 이른다. 소반(小盤)은 먹거리를 올려놓고 먹는데 사용(使用)하는 생활(生活) 도구(道具)이다. 한국(韓國) 전통(傳統) 사회(社會)에서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할 수 있는 능력(能力)을 가진 사람은 중류(中流)나 중류(中流) 이상(以上)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거주(居住) 환경(環境)은 부엌과 식사(食事)를 하는 방(房)이 나눠 있다. 따라서 가정(家庭) 주부(主婦)가 부엌에서 음식(飮食)을 만들어 소반(小盤)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방에서 먹는다. 결국(結局) 소반(小盤)은 음식(飮食)을 소반(小盤) 위에 올려놓고 이동(移動)할 때 사용(使用)하는 운반(運搬) 도구(道具)이면서 식사(食事)를 할 때 음식(飮食)을 올려놓고 먹는 두 가지 기능(機能)이 복합(複合)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理由)로 소반(小盤)의 크기는 가정(家庭) 주부(主婦)가 양팔을 들어 손으로 소반(小盤)의 양(兩) 가장가지를 쥐고 운반(運搬)할 수 있는 어깨 넓이의 크기가 이상적(理想的)이고 적당(適當)한 크기이다. 초기(初期)의 일(一) 인(人) 용(用) 소반(小盤)이나 대부분(大部分)의 소반(小盤)은 어깨 넓이 이지만 점차(漸次) 변화(變化)되어 2 인(人) 용(用), 4 인(人) 용(用), 6 인(人) 용(用) 등으로 커지면서 커지기도 했다. 6 인(人) 이상(以上)이 사용(使用)하는 교자상(交子床)은 두 사람이 상 양쪽에서 같이 든다. 소반(小盤)의 높이는 사람이 온돌방에서 다리를 개고 앉아서 식사(食事)하기에 적합(適合)한 높이 즉 앉았을 때 사람의 배꼽 높이이다. 이 높이가 수저나 젓가락을 사용하여 소반(小盤)에 있는 음식물(飮食物)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기에 가장 적당(適當)한 높이이다. 물론(物論) 용도(用度)나 목적(目的)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지만 이 높이에서 약간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一般的)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韓半島)의 대표적(代表的)인 소반(小盤) 생산지(生産地)이자 대표적(代表的) 소반(小盤)인 해주반(海州盤), 충주반(忠州盤), 나주반(羅州盤), 통영반(統營盤)의 각(各) 지역(地域) 소반(小盤)의 장인(匠人)들을 찾아 현장(現場) 조사(調査)를 실시(實施)하였다. 필자(筆者)가 소반(小盤) 장인(匠人)들과 인터뷰를 통(通)하여 이들의 생애(生涯), 제작(製作) 동기(動機), 제작(製作) 기술(技術), 제작(製作) 재료(材料) 및 도구(道具) 등(等)을 파악(把握)하여 그들이 가진 소반(小盤)에 대(對)한 의식(意識)을 파악(把握)하고 소반(小盤)의 전승(傳承) 원리(原理), 소반(小盤)에 반영(反影)된 한국인(韓國人)의 인식(認識) 체계(體系) 등(等)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역사(歷史)

한국(韓國) 사람들이 언제부터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해 왔는가? 여기에 대(對)한 기록(記錄)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인간(人間)이 채집(採集), 수렵(狩獵), 유목(遊牧) 생활(生活)을 할 때에는 이동(移動)이 중요(重要)하기 때문에 이동(移動)에 불편(不便)하고 복잡(複雜)한 소반(小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있었어도 단순(單純)한 것을 사용(使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人間)이 농업(農業) 정착(定着) 생활(生活)을 하면서 소반(小盤)의 필요성(必要性)이 그 이전(以前) 보다도 더욱 절실(切實)하였을 것이다. 한반도(韓半島)에서 벼농사가 시작(始作)된 것을 학자(學者)에 따라서 의견(意見)이 다르지만 신석기(新石器) 시대(時代)부터나 신석기(新石器) 후기(後期), 구석기(舊石器) 초기(初期)이기 때문에[4] 그 전후(前後)로 소반(小盤)이 사용(使用)되었을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다만 가장 오래된 기록(記錄)은 고구려(高句麗)의 벽화(壁畵)의 예(例)를 들 수 있다. 고구려(高句麗) 벽화(壁畵) 가운데 집안(集眼)에 있는 각저총(角抵塚), 무용총(舞踊塚) 등(等)에서 볼 수 있다.[5] 각저총(角抵塚)에 나오는 소반(小盤)은 1인(人) 용(用)으로 인물(人物)의 앞에 놓여 있으며 소반(小盤) 위에는 음식물(飮食物)을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그릇이 놓여 있다. 적어도 고구려(高句麗) 시대(時代)의 벽화(壁畵)에 소반(小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高句麗) 시대(時代)에는 확실(確實)히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하였고 그 이전(以前)부터 생활(生活)에서 사용(使用)되던 것을 무덤 속에 장식(裝飾)이나 생활(生活)의 일부(一部)로 그려 넣었을 것으로 보인다.[6] 그 후(後) 고려(高麗) 시대(時代) 기록(記錄)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39 지(志) 제 8 직관(職官) 상편(上篇) 공장부(工匠府), 중편(中篇) 궤개전(机概典), 궤반국(机盤局) 등(等)이 나오는데 이들이 내성(內省)에 소속(所屬)되어 궤반(机盤) 등(等)의 생산(生産)을 담당(擔當)했다고 보인다.[7] 『고려사(高麗史)』 제 68 권 지 제 22 권 가례(嘉禮)의 연회(宴會)에 의(依)하면 음식(飮食)을 준비(準備)할 때 상(床)이 사용(使用)되었으며 음식(飮食)의 종류(種類)에 따라서 각기(各其) 다른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하였다는 사실(事實)도 알 수 있다.[8] 그밖에 고려시대의 기록[9] 이나 조선 시대의 기록[10] 에 의하면 소반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소목장(小木匠)이 국가(國家) 기관(機關)에 소속(所屬)되어 소반(小盤), 목기(木器), 문창호(門窓戶), 나무 조각(彫刻) 등(等)을 생산(生産)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반(小盤)은 나무로 만든다. 나무로 만든 상(床)이 물에 젖으면 쉽게 상(傷)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防止)하기 위해서 옻칠을 한다. 좋은 상(床)을 만들기 위해서 옻칠은 한두 번에 끝나지 않고 한번 칠하고 계절(季節)이나 습도(濕度)에 따라서 다르지만 12 시간(時間) 이상(以上) 건조(乾燥)시킨 뒤 사포(砂布)로 닦아낸다. 이렇게 옻칠, 건조(乾燥), 사포(砂布)질의 주기(週期)를 7 번(番) 정도(程度)해야 칠의 고운 자태(姿態)가 생기고, 물에 젖어도 쉽게 닦아지며 내구성(耐久性)도 생긴다.[11] 인류(人類)가 옻칠을 처음 사용(使用)한 것은 6000-6500 년(年) 전(前) 중국(中國)에서부터라고 한다. 한반도(韓半島)에서 옻칠을 사용(使用)한 목기(木器) 유물(遺物)은 BC 1 세기(世紀) 무렵의 것이 출토(出土)되었으며 옻칠의 사용(使用) 시기(時期)는 BC 3 세기(世紀)부터로 본다. 1988 년(年) 경상남도(慶尙南道) 창원군(昌源郡) 다호리(茶戶里) 유적(遺蹟)에서는 각종(各種) 칠기(漆器) 등(等)이 많이 출토(出土)되었다.[12] 이 처럼 여러 유물(遺物)과 자료(資料)들로

보아 한반도(韓半島)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나무를 사용(使用)하여 생활(生活) 용구(用具)나 도구(道具), 목기(木器) 등(等)을 만들어 사용(使用)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민지(植民地) 시대(時代)에는 일인(日人) 학자(學者) 아사카와 다쿠미에 의해서 소반(小盤)에 대(對)한 자료(資料) 조사(調査)와 분석(分析)이 이루어졌다.[13]

4. 종류(種類)

소반(小盤)의 종류(種類)는 앞에서 언급(言及)된 것처럼, 만든 재료(材料), 사용(使用) 목적(目的), 형태(形態) 등(等)에 따라서 다양(多樣)하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朝鮮時代)부터 소반(小盤)의 산지(産地)로 유명(有名)하여 붙여진 해주반(海州盤), 충주반(忠州盤), 나주반(羅州盤), 통영반(統營盤)을 중심(中心)으로 살펴보고한다. 이들 각(各) 지역(地域) 산지(産地)의 기능(技能) 보유자(保有者)들을 필자(筆者)가 직접(直接) 방문(訪問) 조사(調査)하여 정리(整理)한 내용(內容)이다. 따라서 중복(重複)된 내용(內容)이나 제보자(提報者)의 개성적(個性的)인 언급(言及)이 들어있을 수 있다.

1) 해주반(海州盤)

해주반(海州盤)은 현재(現在) 황해도(黃海道) 지역(地域)이기 때문에 자유(自由)로이 조사(調査)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제보자(提報者) 이(李) 씨(氏)가 경기도(京畿道) 출신(出身)이지만 일찍이 해주반(海州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해주반(海州盤)을 만들어왔고 그것을 인정(認定)받아 소반(小盤) 기능(技能) 소지자(所持者)으로서는 처음 1992 년(年) 국가(國家) 지정(指定)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第) 99 호(號)로 지정(指定)을 받았다. 소반장(小盤匠)으로 국가(國家) 지정(指定) 문화재(文化財)는 이(李) 씨(氏)가 유일(唯一)하며 나머지 소반장(小盤匠)의 문화재(文化財) 지정(指定)은 각(各) 지역(地域) 별(別)로 되어 있다.

이(李) 제보자(提報者)는 1928 년(年) 4 월(月) 충청남도(忠淸南道) 천안(天安)에서 출생(出生)하여 3 세(歲) 무렵 천안(天安)에서 30 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京畿道) 안성(安城)으로 이사(移徙)한다. 이곳에서 자신(自身)의 부친(父親)이 직원(職員) 5, 6 명(名)과 소반(小盤)을 만드는 공장(工場)을 경영(經營)하기 시작(始作)했기 때문이다. 이(李) 제보자(提報者)는 식민지(植民地) 시대(時代) 철도(鐵道) 공무원(公務員)으로 일하다가 일이 어려워 18 세(歲) 무렵 철도청(鐵道廳) 일을 사직(辭職)하고 집에서 상(床) 만드는 일을 돕기 시작(始作)한다. 그 후(後) 상(床)을 만드는 일도 배우게 되어 본격적(本格的)으로 상(床) 제작(製作)에 집중(執中)하고 부친(父親)을 이어 공장(工場)을 경영(經營)한다. 상(床)을 만드는 나무는 주로 은행(銀杏) 나무를 사용했으나 그 밖의 피나무, 등등(等等) 어떤 나무라도 상(床)을 만들 수 있고 만든 적도 있다. 은행(銀杏) 나무로 만든 상은 옻칠이 잘 받아 상(床)이 곱고 높이 평가(評價)를 받아 행자목상(杏子木床)이라고 하여 소중(所重)히 여겼다. 상(床)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은행(銀杏) 나무는 집 부근(附近)에 있는 제재소(製材所)에서 직접(直接) 구입(購入)하거나 마을 주변(周邊)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 직접(直接) 구입(購入)하고 인부(人夫)를 구(求)하여 절단(切斷)하고 제재(製材)하여 사용(使用)했다. 그밖에 괴목(槐木) 나무를 사용(使用)하기도 했는데 괴목(槐木) 나무 상(床)은 나이테 무늬가

아름다운 것이 특징(特徵)이다. 이(李) 제보자(提報者)가 안성(安城)에서 상(床) 공장(工場)을 경영(經營)하던 당시(當時) 안성(安城)에는 상(床)을 만드는 곳이 두 서너 곳 있었으며 그 밖의 전국(全國) 각지(各地)에 상(床)을 만드는 곳이 있었다. 특(特)히 서울에는 마장동(馬場洞)이나 왕십리(往十里) 부근(附近)에 공장(工場)이 열 곳 이상(以上) 있었다. 당시(當時) 공장(工場)에서 상(床)을 만들면 이것을 판매(販賣)하는 장사꾼이 공장(工場)에 와서 상(床)을 등에 10 개(個) 이상(以上) 씩 지고 각(各) 마을을 방문(訪問)하면서 상(床)을 팔았다. 또한 당시(當時) 각(各) 지역(地域)에는 오일장이 서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상(床)을 만드는 일도 오(五) 일(日) 주기(週期)로 칠(漆) 작업(作業)을 마쳐 판매(販賣)를 했다. 오(五) 일(日) 주기(週期)로 칠(漆) 작업(作業)을 마치기 위해서는 보통(普通) 칠(漆)을 진하게 하여 매일(每日) 한 차례 씩 칠(漆) 작업(作業)을 하고, 건조(乾燥)시킨 뒤 다시 다음 날 칠(漆) 작업(作業)을 하고 건조(乾燥)시키는 방법(方法)으로 네 번(番) 칠(漆) 작업(作業)을 한다. 당시(當時) 공장(工場)에서 일하는 직원(職員)은 목공(木工)이 네 명(名) 정도(程度)였다. 이들이 상(床)을 만들면 칠(七)을 칠(漆)하는 사람이 칠 작업(作業)을 한다. 칠(漆)을 칠하는 사람은 한, 두 명(名) 정도(程度)이다. 이들이 5 일(日) 간(間) 작업(作業)하여 만들어 내는 상(床)은 계절(季節)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約) 20 개(個) 전후(前後)였다. 공장(工場)에서 만든 상(床)은 장사꾼이 가지고 가서 팔거나 그 밖에 손님이 직접(直接) 공장(工場)을 방문(訪問)하여 자신(自身)의 취향(趣向)에 맞는 상(床)을 주문(注文)하여 구입(購入)하는 경우(境遇)도 있었다. 그러나 1970 년대(年代) 생활양식(生活樣式)의 변화(變化)로 상(床) 소비(消費)가 줄어들어 결국(結局) 회사(會社)의 문(門)을 닫고 서울로 이사(移徙)를 한다. 서울에서는 처음 3 년(年) 동안 상(床) 공장(工場)에서 상(床)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 후(後) 현재 자신(自身)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가족(家族)들과 더불어 상(床)을 만들어 시장(市場)에 팔기 시작(始作)했다.

이(李) 제보자(提報者)는 20 대(代) 때 그림을 공부(工夫)한 적도 있었다. 그 뒤 상(床)을 만드는 일을 할 때에도 디자인 개념(槪念)을 도입(導入)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試圖)하기도 했으며 다른 지역(地域)의 상(床)을 만들기도 했다. 전국적(全國的)으로 유명(有名)한 해주반(海州盤), 충주반(忠州盤), 나주반(羅州盤), 통영반(統營盤) 등(等)은 각기(各其) 고유(固有)한 특징(特徵)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각(各) 지역(地域)에 사는 장인(匠人)들이 생산(生産)의 효율성(效率性)을 기(寄)하기 위(爲)해서 고유(固有)한 디자인을 정(定)하여 만드는 것이 고착(固着)되어 특징(特徵)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상(床)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칠(漆) 작업(作業)이다. 옻칠(漆) 재료(材料)가 부족(不足)할 때에는 들기름이나 유채(油菜) 기름으로 초벌을 칠한 뒤 옻을 사용(使用)하기도 하는데 건성(乾性)인 들기름이 가장 적합(適合)하고 나머지는 습기(濕氣)가 많아 그다지 좋지 않다. 그리고 초벌칠을 할 때 톱밥이나 재나 떫은 감물을 섞어서 사용(使用)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상(床) 만드는 사람의 취향(趣向)에 따라서 섞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도 한다. 생칠(生漆)은 정제(精製)하여 사용(使用)하는데 옻칠의 묽기에 따라서 색(色)이 다르고 나무 종류(種類)나 계절(季節)에 따라서 스며드는 속도(速度)나 건조(乾燥) 시간(時間)이 다르다.

해주반(海州盤)의 특징(特徵)은 상다리를 각목(角木)으로 하지 않고 직선(直線)의 판목(板木)을 사용(使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목(板木), 판각(板刻)에 완자(卍子)무늬, 풀잎무늬,

박쥐무늬 등(等)을 투각(透刻)하는 것이다. 이(李) 제보자(提報者)가 해주반(海州盤)에 특(特)히 관심(關心)이 많았던 것은 이 판각(板刻)에 자신(自身)의 예술(藝術) 취향(趣向)을 발휘(發揮)하여 여러 가지 다양(多樣)한 무늬를 투각(透刻)하는데 흥미(興味)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李) 제보자(提報者)는 직접(直接) 운보(雲甫)라는 유명(有名)한 화가(畵家) 아래서 미술(美術) 수업(授業)을 받은 적도 있으며 자신(自身)의 호(號)도 스승의 호(號)와 비슷한 춘보(春甫)라고 하는데서 엿볼 수 있다. <사진 2>

2) 충주반(忠州盤)과 공주반(公州盤)

현재(現在) 충주반(忠州盤)의 전승(傳承) 보유자(保有者)로 지정(指定)된 사람은 없다. 다만 충주반(忠州盤)의 유물(遺物)만이 충주박물관(忠州博物館) 등(等)에 남아 있다. 충주반(忠州盤)의 특징(特徵)은 상다리에 있다. 충주반(忠州盤)의 상다리는 개의 다리를 닮은 개다리소반, 구족반(狗足盤)이나 말의 다리를 닮은 마족반(馬足盤)이다. <사진 3>

현재(現在) 충주반(忠州盤)의 전승자(傳承者)는 지정(指定)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충청도(忠靑道) 공주(公州)에서 공주반(公州盤)이라는 이름으로 소반(小盤)을 제작(製作)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유(柳) 제보자(提報者)이다. 유(柳) 씨(氏)는 현대적(現代的)인 교육시설(敎育施設)에서 목공(木工)을 배우고 목공장(木工場)에서 현장(現場) 체험(體驗)을 한 뒤 소반(小盤)을 만들기 시작(始作)했다.

유(柳) 씨(氏)는 17 세(歲)가 되던 1968 년(年) 정수직업학교(精髓職業學校)에 입학(入學)하여 목공(木工)을 배웠다. 그리고 목공예(木工藝)를 하던 당시(當時) 선생(先生) 수하(手下)에 들어가 5 년간(年間) 공방(工房) 생활(生活)을 한다. 그리고 24 세(歲)가 되던 1975 년(年) 자신(自身)의 고향(故鄕)인 공주(公州)에 내려와 현재(現在)까지 공주반(公州盤)이라고 하는 자신(自身)의 독특(獨特)한 소반(小盤)을 만들고 있다. 고향(故鄕) 공주(公州)에 내려와 당시(當時) 공주(公州)에서 소반(小盤)을 만들었던 분들을 찾아 조언(助言)을 구(求)하고 배우기를 원(願)했으나 이미 소반(小盤)은 생활필수품(生活必需品)의 반열(班列)에서 벗어나 소비(消費)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柳) 씨(氏)는 자신(自身)이 좋아하던 소반(小盤)을 자신(自身)의 개성(個性)에 따라서 만들기 시작(始作)한다. 그렇게 시작(始作)한 작업(作業)은 지금(只今)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柳) 씨(氏)는 느티나무만을 사용(使用)하여 소반(小盤)을 만든다. 느티나무는 나무가 무겁고 단단하여 가공(加工)하기 어렵지만 나뭇결의 고운 무늬가 아름다워 일단(一旦)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감탄(感歎)할 정도(程度)이다. 그리고 소반(小盤)이 생활필수품(生活必需品)이던 당시(當時)에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 올려놓고 방으로 들고 왔었다. 그러나 지금(只今)은 식사(食事)는 주(主)로 테이블에서 하고 소반(小盤)은 차(茶)를 마시거나 장식(裝飾)으로 사용(使用)한다. 따라서 소반(小盤)이 무거워도 크게 문제(問題)가 되지 않는다.

한국(韓國) 소반(小盤)은 해주반(海州盤), 충주반(忠州盤), 통영반(統營盤), 나주반(羅州盤) 등(等)이 유명(有名)하고 개성(個性)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이름은 개별적(個別的)인 소반(小盤)의 구분(區分)이기 보다는 해주(海州), 충주(忠州), 통영(統營), 나주(羅州) 등(等)은 큰 시장(市場)을 끼고 있기 때문에 대량(大量) 생산(生産)이 가능(可能)하고 대량(大量)으로 생산(生産)하면서 생산(生産)의 편의(便宜)를 도모(圖謀)하고 생산(生産) 속도(速度)를

빨리하기 위해서 자신(自身)의 개성(個性)이 정(定)해져 지어진 이름이다. 그래서 위 지역(地域)에 해당(該當)되지 않는 공주(公州)에서도 예로부터 소반(小盤)을 만들어왔다. 지금(只今) 그 당시(當時) 공주(公州)에서 만들어진 소반(小盤)을 보면 나주반(羅州盤)과 거의 일치(一致)한다.

보통(普通) 소반(小盤)은 행자반(杏子盤)이라고 하여 은행(銀杏) 나무를 많이 사용(使用)한다. 은행(銀杏) 나무는 부드러워 가공(加工)하기 쉽고 섬유질(纖維質)이 많아서 옻을 잘 흡수(吸收)하고 가볍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사용(使用)되어왔다. 그러나 나무가 무르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떨어뜨리면 깨지기 쉽다. 그러나 느티나무는 나무가 단단하여 가공(加工)하기 어렵다. 짜 맞출 때에도 힘으로 밀어 넣거나 굽히지 못하고 정교(精巧)하게 깎아서 맞추지 않으면 짜지지 않는다. 그래도 느티나무 소반(小盤)은 일단(一旦) 정교(精巧)하게 만들어 놓으면 단단하여 부서지는 일 없이 오랫동안 사용(使用)할 수 있다. 소반(小盤)의 목(木) 가공(加工)이 끝나면 옻칠 작업(作業)을 한다. 옻칠 작업(作業)은 보통(普通) 매일(每日) 하루에 한번 칠하고 칠장(漆欌)에서 말려 사포(砂布)로 문지른 다음 다시 칠하고 말리고, 사포(砂布) 작업(作業)을 모두 9 회(回) 실시(實施)한다. 보통(普通) 칠장(漆欌)은 섭씨 24,5 도(度), 습도(濕度) 70 퍼센트가 적당(適當)하다. 유(柳) 씨(氏)는 월(月) 평균(平均) 2 개(個) 정도(程度) 소규모(小規模)로 생산(生産)하고 있기 때문에 칠(漆) 작업(作業) 역시(亦是) 기후(氣候) 조건(條件)에 맞춰서 최적(最適)의 상태(狀態)를 맞춰서 작업(作業)을 진행(進行)한다. 유(柳) 씨(氏)가 만든 소반(小盤)은 원형(圓形)이 많은데 지름 60 센티, 높이 28 센티 정도(程度) 크기가 많았다. <2008.8.29(금) 조사> <사진 4>

3) 나주반(羅州盤)

나주(羅州)는 전라도(全羅道)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전라도(全羅道)는 이름은 현재(現在) 전라북도(全羅北道)의 전주(全州)와 전라남도(全羅南道)의 나주(羅州)의 첫 글자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 나주(羅州)는 한반도(韓半島) 서남(西南)에서 중추적(中樞的)인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하던 곳이다. 지금(只今)도 나주(羅州) 시내(市內) 각지(各地)에 흩어져 있는 성벽(城壁)이나 성문(城門), 감영(監營) 등(等)에서 조선시대(朝鮮時代) 번성(繁盛)했던 흔적(痕迹)을 엿볼 수 있다. 나주(羅州) 지방(地方)에서 생산(生産)된 질 좋은 쌀은 나주(羅州)를 끼고 흐르는 영산강(榮山江)에서 배에 실려 서해안(西海岸)을 거쳐 한양(漢陽)에 이르렀다. 당시(當時) 나주(羅州)의 영화(榮華)와 번성(繁盛)의 상징(象徵)으로 나주반(羅州盤)의 명성(名聲)이 현재(現在)에 까지 남아있다. 나주반(羅州盤) 제작자(製作者) 김(金) 씨(氏)는 현재(現在) 전라남도(全羅南道)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되어 있다.

한반도(韓半島)에 살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밥상을 썼는지 확실(確實)한 기록(記錄)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고대(古代)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祭祀)하는 제천의식(祭天儀式)이나 조상(祖上)에게 제사(祭祀)하는 습속(習俗)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때 거의 대부분(大部分) 제물(祭物)이 진설(陳設)된다. 사람들은 신(神)이나 조상(祖上)에게 받치는 제물(祭物)을 맨땅에 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최소(最小)한 맨땅이라고 깨끗이 청소(淸掃)했을 것이며, 최소한(最小限) 자연(自然)의 돌이라도 준비(準備)하여 놓고 제사(祭祀)를 지냈을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자연석(自然石)이 힘들다고 생각하여 나무 판자(板子)를 돌로 받쳐 놓고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이것이 밥상의 시초(始初)가 아닌가 한다. 고구려(高句麗) 벽화(壁畵)에서 발견(發見)되는 밥상을 든 시녀(侍女)의 모습(模襲)이나 밥상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림에서 고구려(高句麗) 시대(時代)에 이미 밥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사진 5> 조선(朝鮮) 시대(時代)에도 밥상은 일인(一人) 상(床)이 기본(基本)이고 그 크기가 유교적(儒敎的) 규율(規律)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왕(王)이 밥상을 신하(臣下)에게 하사(下賜)했다는 기록(記錄) 등(等)에서 서서(徐徐)히 민간(民間)에게 밥상이 전(傳)해지기 시작(始作)했다고 하는 사실(事實)을 알 수 있다.

한반도(韓半島)에는 예로부터 해주반(海州盤), 나주반(羅州盤), 통영반(統營盤)이 있었다. 이들 세 곳은 고대(古代) 한반도(韓半島)의 고구려(高句麗), 신라(新羅), 백제(百濟)의 영역(領域)과 일치(一致)한다. 이들 세 국가(國家)는 강(江)이나 산(山)을 중심(中心) 경계(境界)로 존재(存在)했었다. 이 지역적(地域的) 한계(限界)가 소반(小盤)의 제작(製作)과 판매(販賣)와도 깊은 관련(關聯)이 있다고 하겠다. 이들 지역(地域)은 각각(各各) 대동강(大同江), 영산강(榮山江), 남해(南海) 등(等) 강(江)과 바다를 끼고 있다, 이것은 물길을 통(通)하여 재료(材料)를 얻고 판로(販路)를 개척(開拓)한 사실(事實)과 깊은 관련(關聯)을 가지고 있다. 해주반(海州盤)은 밥상의 천판(天板) 아래쪽 운각(雲脚)의 장식(裝飾)이 화려(華麗)하다. 그리고 통영반(統營盤)은 옻칠(漆)과 나전(螺鈿)을 사용(使用)하여 화려(華麗)하다. 나주반(羅州盤)은 간결(簡潔) 소박(素朴)하다. 따라서 나주반(羅州盤)을 사용(使用)하여 식사(食事)를 할 때 식사(食事)에 집중(集中)할 수 있고, 밥상이 간결(簡潔) 소박(素朴)하기 때문에 설거지 역시 쉽고 간단(簡單)히 끝낼 수 있다. 나주반(羅州盤)은 주(主)로 은행(銀杏) 나무로 만들고 옻칠을 여러 번 한다. 은행(銀杏) 나무는 징코민이라고 하는 성분(成分)이 있어서 인간(人間)의 몸에 유익(有益)하다. 옻 역시 예로부터 건위제(乾位劑)로 사용(使用)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인(韓國人)이 즐겨 사용(使用)하는 놋그릇에 뜨거운 밥을 담아 옻칠한 밥상에 밥그릇을 올려놓으면 놋쇠의 뜨거운 열(熱)로 옻칠한 상(床) 위에 열(熱)이 가(加)해져 은행(銀杏) 나무의 성분(成分)과 옻의 성분(成分)이 약간(若干) 녹으면서 향기(香氣)를 발(發)한다. 이 향기(香氣)를 매(每) 식사(食事) 때 마다 맡게 되면 비록 적은 양(量)이라도 반복(反復)해서 맡게 되면 인체(人體)에 흡입(吸入)되어 신체(身體)를 건강(健康)하게 한다. 한국인(韓國人)들은 아기를 출산(出産)할 때에 삼신상(三神床)을 산방(産房)에 차려 놓고 건강(健康)한 아이의 출산(出産)을 산심할머니에게 기원(祈願)하다.<사진 6> 그리고 출생(出生)한 뒤에도 100 일(日) 상(床)에 백설기를 올려놓고 아이의 무병(無病) 건강(健康)을 감사(感謝)하고 기원(祈願)했다.<사진 7> 그리고 돌상에는 수수경단을 올려놓았고, 매년(每年) 생일상(生日床)에는 미역국과 축하(祝賀)하는 떡을 생일상(生日床)에 올려놓고 먹는다. 나이가 들어 결혼식(結婚式) 때는 상(床)에 음식(飮食)을 차려 놓고 예식(禮式)을 거행(擧行)하고 합환상(合歡床) 위에 합환주(合歡酒)를 올려놓고 마신다.<사진 8> 나이 60 세(歲)가 되면 환갑상(還甲床)<사진 9>, 61 세(歲)에는 진갑상(進甲床), 70 에는 칠순상(七順床), 80 에는 팔순상(八旬床), 90 에는 미수상(米壽床), 죽은 뒤에는 사자상(使者床)을 차려 사자(使者)님이 죽은 영혼(靈魂)을 무사(無事)히 저승으로 인도(引導)해 가기를 기원(祈願)했다. 그리고 남은 가족(家族)들은 먼저 간 조상(祖上)들을

위(爲)해서 제사상(祭祀床)을 차려둔다. 이처럼 한국인(韓國人)은 출생(出生)에서부터 일생(一生) 동안 그리고 죽은 뒤에도 상(床)과 떨어질 수 없는 인연(因緣)이 있다. 나주(羅州) 지역(地域)에는 지금(只今)도 칠전(漆田)이라는 지명(地名)이 전(傳)해지고 있다. 칠전(漆田)은 칠(漆)을 채취(採取)하는 옻나무가 있었던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解析)되며 오래전부터 나주(羅州)에서는 칠(漆)을 재배(栽培)하여 나주반(羅州盤)에 사용(使用)했었던 것으로 짐작(斟酌)된다. 특(特)히 나주(羅州) 남쪽 따뜻한 지역(地域)에서는 황칠(黃漆)이라고 하여 투명(透明)한 고급(高級) 칠(漆)이 생산(生産)되기도 했으나 최근(最近) 채취량(採取量)이 격감(激減)되어 그다지 활용(活用)되고 있지 않다.

소반(小盤)은 천판(天板), 운각(雲脚), 다리 등(等) 세 부분(部分)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천판(天板)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로 은행(銀杏) 나무로 만든다. 천판(天板)은 파기판이나 패기판이라고 하여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엘 자 형(型)으로 파서 만드는 경우(境遇)와 상 가장자리에 변죽을 만들어 상판(床板)에 끼워 넣는 경우(境遇)로 나눠 볼 수 있다. 통영반(統營盤)과 나주반(羅州盤)을 주로 파기판을 사용(使用)한다. 다만 나주반(羅州盤)은 변죽을 끼워 넣는 경우(境遇)가 많다. 그 이유(理由)는 나주반(羅州盤)의 경우(境遇) 한 장 짜리 통판(通板)으로 천판(天板)을 만들기 때문에 상(床)이 휘거나 뒤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 휘는 것을 방지(防止)하기 위(爲)해서 변죽을 끼워 넣는다. 이 변죽이 나주반(羅州盤)의 특징(特徵)이기도 하다. 가끔 나주반(羅州盤)에서도 변죽이 없고 파기판으로 된 것도 있다. 그런데 호남(湖南) 지방(地方) 집에서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分離)되어 있는 경우(境遇) 안채 부엌에서 준비(準備)한 밥상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서 옮길 경우(境遇) 상(床) 가장자리가 낮으면 상 위의 음식물(飮食物)이 미끄러질 수 있다. 나주반(羅州盤)에서 가장자리가 높은 것은 상(床)을 운반(運搬)할 때에 상(床) 위의 음식물(飮食物)이 미끌어 떨어지는 것을 방지(防止)할 수 있다.

김(金) 씨(氏)는 1937 년(年) 나주(羅州)에서 출생(出生)하여 생활(生活)하던 중 모친(母親)이 생활(生活)이 어려워 형(兄)이 살던 일본(日本) 규슈(九州)로 이사(移徙)하여 살다가 소학교(小學校) 3 학년(學年) 때 다시 나주(羅州)로 돌아와 살았다. 25 세(歲)가 되던 1961 년(年)부터 밥상을 수리(修理)하다가 나주반(羅州盤)에 관심(關心)을 갖게 되어 나주반(羅州盤)에 관(關)한 자료(資料) 수집(蒐集)과 헌상을 수리(修理)하면서 얻은 자료(資料)를 근거(根據)로 나주반(羅州盤)을 복원(復元)하여 1976 년(年)도 광주(光州) 학생회관(學生會館)에서 나주반(羅州盤)에 대(對)해서 발표(發表)하여 큰 반향(反響)을 일으켰다. 그 후(後) 인근(隣近)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현재(現在)까지 나주반(羅州盤) 백골(白骨)을 만들고 옻칠을 칠하고 있다. 나무로 만든 나주반(羅州盤)은 다른 도자기(陶瓷器) 등(等)과 달리 쉽게 부식(腐蝕)되고, 불에 타기 때문에 유물(遺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金) 씨(氏)는 헌상을 수리(修理)하면서 분해(分解)와 조립(組立)을 반복(反復)하기도하고, 종갓집 재실(齋室) 등(等)에 보관(保管)된 오래된 상(床)들을 찾아 수리(修理)를 자청(自請)하기도 하면서 자료(資料)를 축적(蓄積)하였다.

나무그릇이나 생활(生活) 도구(道具) 등(等)에 옻칠을 한 것은 오랜 역사(歷史)를 가지고 있다. 목기(木器)에 옻칠을 하면 유기물(有機物)인 나무의 한계(限界)를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실용적(實用的)인 목적(目的)과 아름다움을 표현(表現)하고자 하는

개성(個性)에서 나주반(羅州盤)을 비롯한 밥상을 만들어 사용(使用)해왔다. 한국(韓國) 사람들은 1970 년대(年代) 이전(以前)까지 거의 대부분(大部分) 온돌 생활(生活)을 했기 때문에 밥상이 식사(食事)의 필수품(必需品)이었다. 그러나 1970 년대(年代) 이후(以後) 급격(急激)한 경제(經濟) 성장(成長)과 사회변화(社會變化)에 따라 아파트가 보급(普及)되면서 입식(立食) 생활(生活), 테이블이 보급(普及)되고 편리(便利)한 플라스틱 제품(製品)이 급격(急激)히 유포(流布)되면서 밥상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80 년대(年代) 경제(經濟) 성장(成長)과 전통(傳統) 문화(文化)에 대(對)한 관심(關心), 건강(健康)한 생활(生活) 등(等)에 관심(關心)을 가지면서 옻칠에 대(對)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

옻칠은 옻나무에서 채취(採取)하기 때문에 생산량(生産量)이 한정(限定)되어 있고 값이 비싸다. 그리고 백골(白骨)에 옻칠을 할 때에도 옻칠을 하고 사포(砂布)로 갈아내기를 8 번(番) 정도(程度) 하기 때문에 시간(時間)과 품이 많이 든다. 사포(砂布)질을 할 때에는 사포(砂布)의 굵기에 따라서 번호(番號)가 정(定)해져 있는데 첫 번 째와 두 번 째 칠(漆)을 하고 사포(砂布)질을 할 때에는 320 번(番) 사포(砂布), 세 번(番) 째와 네 번(番) 째 칠(漆)을 한 다음에는 400 번(番) 사포(砂布), 다섯 번(番) 째와 여섯 번(番) 째 사포(砂布) 칠을 한 다음에는 600 번(番) 사포(砂布), 일곱 번(番) 째 칠을 한 다음에는 가장 부드러운 800 번 사포(砂布)로 마무리를 한다. 12 각(角) 호족반(虎足盤)을 만드는 경우(境遇) 한꺼번에 다섯 개(個) 정도(程度)를 만든다. 먼저 나무로 목공(木工)을 한다. 이 때에는 깔판이라고 하는 나무 판자(길이 1360, 폭 230 센티미터)를 30 도(度) 정도(程度)로 기울여 높고 그 위에 앉아서 작업(作業)한다. 작업(作業) 때 제작(製作) 중(中)인 백골(白骨)을 고정(固定)시킬 때에는 깔판의 맨 아래쪽에 뚫린 구멍에 사각 나무를 끼워 고정(固定)시킨 뒤 백골(白骨)을 밀착(密着)시켜 작업(作業)한다. 그리고 대패질을 할 때에는 깔판 위에 깔판보다도 폭이 큰 판자(板子)를 올려놓고 아래 부분(部分)을 고정(固定)시켜두고 대패질을 한다. 대패질은 일본(日本) 방식(方式)의 당기는 대패가 아니고 티 자형(字形)의 미는 대패를 주(主)로 사용(使用)한다. 백골(白骨)을 다 만든 다음 옻칠과 건조(乾燥), 사포(砂布)질을 반복(反復)하여 여덟 번(番) 한다. 물론(勿論) 칠을 한 다음에는 칠장(漆欌)에 넣어서 건조(乾燥)시킨다. 건조(乾燥) 시간(時間)은 계절(季節)에 따라 다르지만 여름철 습도(濕度)가 높은 경우(境遇) 하루 정도(程度) 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煖房)을 하면서 이틀 정도(程度) 말린다. 사포(砂布)질을 할 때에도 사포(砂布)에 물을 적셔서 사포(砂布)질을 하는데 손에 장갑(掌匣)을 끼면 손을 보호(保護)할 수는 있지만 감각(感覺)이 무뎌져서 올바로 사포(砂布)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恒常) 맨손으로 사포(砂布)질을 한다.<사진 10> 그래서 항시(恒時) 작업(作業)할 때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난다. 상(床)을 만들 때에는 상(床)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나씩 만들지 않고 한 차례에 5 개(個) 정도(程度)를 만든다. 먼저 나무 작업(作業)을 통(通)해서 백골(白骨)을 만들고 반복(反復)해서 옻칠과 사포(砂布)질을 한다. 이 다섯 개(個)를 완성(完成)시키는 데는 옻칠과 건조(乾燥), 사포(砂布)질을 포함(包含)하여 1 개월(個月) 정도(程度) 걸린다.<사진 11>

상(床) 공방(工房)에서 만든 나주반(羅州盤)은 상(床) 장수들이 주(主)로 판매(販賣)한다. 교통(交通)이 발달(發達)하지 않은 옛날 상(床) 장수는 상(床) 15 개(個) 정도(程度)를 천으로 된 질빵으로 묶어서 등에 지고 다니면서 판매(販賣)한다. 물론(勿論) 상(床)이 다 팔리면

질빵만 가볍게 접어 넣고 돌아오고는 한다. 상(床) 장수는 가끔 상(床) 공방(工房)에 선금(先金)을 주고 상(床)을 사다가 파는 경우(境遇)도 있으나 대부분(大部分) 공방(工房)에서 외상으로 구입(購入)하여 상(床)을 판 뒤에 돈을 갚는 경우(境遇)가 많았다. 상(床) 장수의 상(床) 소매(小賣) 판매(販賣) 금액(金額)은 상(床) 제작(製作) 시(時) 구입(購入) 금액(金額)보다 3 배(培) 이상(以上) 높았다. 김(金) 씨(氏)는 상(床) 장수의 비용(費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상(床)의 판매(販賣)를 상(床) 장수에게 의뢰(依賴)하지 않고 직접(直接) 시장(市場)에서 상(床)을 제작(製作)하여 판매(販賣)하고 수리를 한 적도 있다. <2007.9.7(수) - 9.8(목) 조사>

4) 통영반(統營盤)

경상남도(慶尙南道) 통영(統營)은 조선시대(朝鮮時代)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가 있던 곳으로 당시(當時) 군수(軍需) 물자(物資)를 생산(生産)하는 12 공방(工房)이 있었던 곳이다. 12 공방(工房)은 군수(軍需) 물자(物資)를 전문적(專門的)으로 생산(生産)하는 국가(國家) 시설(施設)이다. 이곳에는 솜씨가 좋은 전문(專門) 기술자(技術者)들이 전국(全國)에서 모여들어 제품(製品)을 생산(生産)하였으며 남는 상품(商品)은 민수용(民需用)으로 공급(供給)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통영(統營)은 바다가에서 소라(小鑼), 전복(全鰒) 등(等)에서 채취(採取)한 질 좋은 자개를 이용(利用)하여 나전칠기(螺鈿漆器) 기술(技術)이 발전(發展)한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歷史的) 전통(傳統)의 영향(影向)으로 통영(統營)에는 지금(只今)도 나전칠기(螺鈿漆器), 통영장(統營欌), 통영소반(統營小盤), 염장(簾匠) 등등(等等) 여러 가지 전통(傳統) 공예(工藝)가 남아있다.

통영(統營) 소반(小盤)은 소반(小盤)의 위판과 다리 사이에 풍혈(風穴)을 장식(裝飾)하는 기법(技法)이 특이(特異)하다. 이 통영(統營) 소반(小盤)을 이(二) 대(代) 째 이어서 만들고 있는 추(秋) 씨(氏)가 있다. 추(秋) 제보자(提報者)는 1950 년(年) 태어나 현재(現在) 경상남도(慶尙南道) 지정(指定)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第) 24 호(號)이다.

한국(韓國) 사람들은 예로부터 온돌방에서 생활(生活)해 왔다. 온돌방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새끼를 꼬거나 바느질을 해왔다. 밥을 먹는 일 역시(亦是) 온돌 위에서 밥상 위에 밥과 반찬(飯饌) 등을 올려놓고 식사(食事)를 해왔다. 언제부터 밥상이 사용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조선(朝鮮) 시대(時代) 임금의 밥상과 반찬(飯饌)의 수(數) 등(等)이 정(定)해진 기록(記錄)과 임금이 신하(臣下)나 국가(國家)를 위(爲)해서 수고한 사람들에 밥상을 하사(下賜)했다는 기록(記錄) 등(等)으로 보아 현재(現在)와 같은 밥상의 사용(使用) 시기(時期)는 대략(大略) 조선(朝鮮) 중기(中期) 이후(以後)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밥상을 만든 시기도 당시(當時)부터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밥상을 만드는 것은 나무를 재료(材料) 도구(道具)를 사용하여 만든다는 점(點)에서 품질(品質) 좋은 철기(鐵器) 도구(道具)의 제작(製作) 및 사용(使用) 역시(亦是) 조선(朝鮮) 중기(中期)부터가 무난(無難)하다고 본다. 밥상을 만드는 곳은 예로부터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의 해주반(海州盤), 전라도(全羅道) 나주(羅州)의 나주반(羅州盤), 경상도(慶尙道) 통영(統營)의 통영반(統營盤)이 유명(有名)했다. 현재(現在) 일반(一般) 가정(家庭)에서는 거의 대부분(大部分) 서구식(西歐式) 테이블을 사용(使用)하기 때문에 밥상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도 밥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시(當時) 밥상이나 그 밖의 생활(生活) 기구(器具)를 만들던 기술(技術)과 도구(道具)를 이용(利用)하여 여러 가지 작품(作品)을 제작(製作)하고 있다.

도(道) 지정(指定)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第) 24 호(號), 통영(統營) 소반(小盤), 추(秋) 씨(氏)는 아버지(추 곰동이) 때부터 소목장(小木匠)으로 여러 가지 생활(生活) 도구(道具)를 만들어왔다. 추(秋) 씨(氏)의 부친(父親) 추(秋) 곰동이 씨(氏)는 소목장(小木匠)으로 조선(朝鮮) 시대(時代) 유명(有名)한 분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全國) 순회(巡廻)를 하면서 통영반(統營盤)을 비롯한 밥상의 제작(製作)에 힘써왔다. 그런데 1974 년(年) 갑자기 부친(父親)이 별세(別世)하여 그의 아들 추(秋) 씨(氏)가 그 뒤를 이어 소목장(小木匠)의 일에 종사(從事)해오고 있다. 추(秋) 씨(氏)는 아버지가 직접(直接) 만들어 사용(使用)했던 연장들을 지금(只今)도 거의 사용(使用)하고 있다. 이것들은 사용(使用) 목적(目的)이나 나무의 재질(材質)에 따라 조선(朝鮮)의 전통적(傳統的)인 방식(方式)으로 사용(使用)되던 것들이다.<사진 12>

통영반(統營盤)의 재료(材料)는 팽나무, 느티나무. 은행(銀杏) 나무 등(等)이 사용(使用)된다. 팽나무나 느티나무는 무늬가 아름답고 단단하지만 무거운 특징(特徵)이 있다. 은행(銀杏) 나무는 가볍고 물이나 벌레에 강(强)하지만 무늬가 없고 단순(單純)하다. 이밖에 소나무(육송), 버드나무 등(等)도 사용(使用)되었다. 밥상, 소반(小盤)은 크게 세 부분(部分)으로 구분(區分)된다. 먼저 밥이나 반찬을 올려놓는 천판(天板)을 들 수 있다. 천판(天板)은 나무 한 장으로 만드는 경우(境遇)도 있지만 큰 나무가 귀(貴)하기 때문에 나무 판자(板子) 여러 장을 옆으로 붙여서 사용(使用)한다. 천판(天板)은 둥근 모양(模樣), 사각(四角), 12 각(角) 등(等)이 있는데 둥근 모양(模樣)은 우주(宇宙), 하늘을 상징(象徵)하고, 사각(四角)은 동서남북(東西南北) 사방(四方)을 상징(象徵)하고, 12 각(角)은 12 지(支), 12 시간(時間)을 상징(象徵)한다. 다음 천판(天板) 바로 아래 부분(部分)을 중대(中臺) 또는 풍혈(風穴)이라고 한다. 이곳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기거나 깎아서 넣는다. 무늬로는 학(鶴)의 날개, 인동초(忍冬草) 등(等)이 있다. 이곳 천판(天板)은 하늘 즉 우주(宇宙)를 받치는 부분(部分)으로 하늘에 뜬 구름 즉 운각(雲脚)을 상징(象徵)한다. 그리고 맨 아래 부분(部分)을 하장(下裝) 또는 족대(足臺)라고 하는데 땅을 상징(象徵)한다고 한다. 이 하장(下裝)은 상(床)의 규모(規模)나 크기에 따라서 길이나 폭(幅)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다리는 개의 다리, 호랑이의 다리 등(等)을 모방(模倣)한다고 해서 개다리소반 즉 구족반(狗足盤), 호족반(虎足盤) 등(等)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통영(統營) 지방(地方)에서는 고양이 다리(앵고다리 ; 통영 방언)라는 말도 있어왔다. 아마도 이것은 호랑이 다리의 별칭(別稱)이 아닌가 한다.<사진 13>

밥상은 원래(元來) 1 인(人) 용(用)이 기준(基準)이었고 그것이 가장 일반적(一般的)이었다. 궁중(宮中)에서 벌이던 연회(宴會)나 통영(統營) 이순신(李純臣) 장군(將軍) 관련(關聯) 행사(行事)에서도 잔치 때에는 참가자(參加者)들이 모두 일인(一人) 상(床)을 받아 식사(食事)를 하였다. 주안상(酒案床)이나 다과상(茶菓床)은 2 인(人) 상(床)이 많다. 특히 천판(天板)이 둥근 것은 도리판이라고 했다. 도리판은 둥근다는 뜻과 두 사람이 사용하는 판(板)이라는 둘이 판에서 왔다는 말도 있다. 이밖에 3 인(人) 상(床), 4 인(人) 상(床), 그리고 연회(宴會)에서 사용(使用)되는 교자상(交子床) 등(等)이 있다.

추(秋) 씨(氏)는 현재(現在)에도 아버지 때부터 사용(使用)하던 도구(道具)를 이용(利用)하여 지금(只今)도 통영반(統營盤)을 만들고 있다. 이 연장들은 아버지가 직접(直接) 만들거나 대장간에 칼날을 주문(注文) 제작(制作)하여 사용(使用)해 왔다. 연장이 낡아지거나 사용(使用)할 수 없게 되면 지금(只今)도 직접(直接) 만들어서 사용(使用)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만들어 사용(使用)하던 연장 가운데 10 여(餘) 가지는 자신(自身)의 능력(能力)으로 도무지 만들 수 없었다. <2007.8.31(금) 조사>

5. 마 무 리

이상(以上)에서 한국인(韓國人)이 사용(使用)하던 상(床), 즉 소반(小盤)에 대(對)해여 명칭(名稱), 의미(意味), 역사(歷史), 종류(種類)에 대(對)해서 살펴보았다. 특(特)히 그간 한국(韓國) 소반(小盤)의 대명사(代名詞)로 알려진 해주반(海州盤), 충주반(忠州盤), 나주반(羅州盤), 통영반(統營盤)을 중심(中心)으로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된 인사(人事)들을 찾아 그들의 생애(生涯), 제작(製作) 동기(動機), 제작(製作) 기법(技法), 기술(技術) 전수(傳受), 소반(小盤)에 대(對)한 인식(認識) 등등(等等) 여러 가지 사항(事項)에 대(對)하여 조사(調査) 정리(整理)하였다. 이들의 공통(共通)된 의견(意見)은 자신(自身)들이 소반(小盤)에 대(對)한 깊은 애정(愛情)과 소목장(小木匠)으로서의 자긍심(自矜心)을 확인(確認)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적(地域的)인 명칭(名稱)이나 특징(特徵)은 편의상(便宜上) 붙인 이름으로 지역적(地域的)인 경계(境界)를 넘어서 서로 교류(交流)하거나 만드는 것을 볼 수도 있었다. 따라서 지역적(地域的)인 구분(區分)은 그다지 중요(重要)하지 않다. 그간 한국(韓國) 사회(社會)가 급격(急激)히 변화(變化)하면서 소반(小盤)의 사용(使用)은 거의 중단(中斷)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現在)까지 소반장(小盤匠)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소반장(小盤匠)이 지닌 소반(小盤)에 대(對)한 애정(愛情)과 소반장(小盤匠)으로서의 자긍심(自矜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可能)했다. 현대(現代)의 경쟁(競爭) 중심(中心) 그리고 경제적(經濟的)인 사고방식(思考方式) 속에서 소반장(小盤匠)이 앞으로 얼마동안 존속(存續) 가능(可能)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1970 년대(年代) 이전(以前) 한국(韓國) 사회(社會)에서 소반(小盤)은 생활필수품(生活必需品)이었다. 그러나 현재(現在) 소반(小盤)은 생활필수품(生活必需品)이 아니고 일부(一部) 기호가(嗜好家)들이나 호사가(好事家)들의 사치품(奢侈品)으로 바뀌어 차(茶)를 즐기는 일부(一部) 계층(階層)이나 스님들의 찻상이 주(主)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소반(小盤)이 어떻게 바뀔지, 혹은 어떻게 존속(存續)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소반(小盤)이 가진 미적(美的) 자산(資産)과 그것을 만드는 기법(技法), 나무를 사용(使用)하는 기술(技術) 등(等)은 꼭 지켜져야 한다.

한국인(韓國人)들은 예로부터 밥이나 음식(飮食)을 먹거나 마실 때, 그리고 음식물(飮食物)이 차려지는 여러 의식(儀式) 때 상(床)이라고 하는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하여 왔다. 소반(小盤)은 의자(倚子)에 걸터앉은 서양식(西洋式) 테이블과 달리 온돌 바닥에 앉아 생활(生活)하는데 필요(必要)한 생활(生活) 도구(道具)이다. 소반(小盤)은 인간(人間) 생활(生活)의 편리(便利)를 위(爲)해서 만든 것인데 온돌이라고 하는 환경(環境) 속에서 태어났다. 언제부터 소반(小盤)을 만들어 사용(使用)했는가하는 구체적(具體的)인 기록(記錄)이나

유물(遺物)은 없지만 한국인(韓國人)들이 온돌 생활(生活)을 해온 2 천년(千年) 이전(以前)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반(小盤)은 처음 나무나 돌로 만든 단순한 형태(形態)였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生活)이 변화(變化)해 가고 사회적(社會的) 계층(階層)이 생기고, 멋이나 아름다움을 추구(追求)하면서 각(各) 지역별(地域別)로 장인(匠人)의 손끝에서 더 아름다운 소반(小盤), 더 개성적(個性的)인 소반(小盤),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하는 목적(目的)이나 용도(用度)에 따라서 다양(多樣)한 소반(小盤)이 개발(開發)되고 생산(生産)되었을 것이다. 또한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하는 사람의 요구(要求)나 주문(注文)이 반영(反影)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예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제보자(提報者)의 조사(調査)에서도 밝혀진 사실(事實)이다. 현재(現在) 한국인(韓國人)은 인구(人口)의 반(半) 이상(以上)이 아파트에서 생활(生活)하고 있다.[14] 아파트의 생활(生活)은 식생활(食生活)에서 의자(倚子)와 테이블을 기본(基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생활(生活)이 시작(始作)되면서 서서(徐徐)히 소반(小盤)이 없어지기 시작(始作)하여 현재(現在) 한국인(韓國人)의 식생활(食生活)에서 소반(小盤)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소반(小盤)이 사라진 사실(事實)은 물질(物質)로서의 소반(小盤)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가족(家族)의 형태(形態)와 식사(食事)의 습관(習慣)도 바뀌게 되었다.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하던 시절(時節)은 대가족(大家族) 제도(制度)가 유지(維持)되던 때이다. 소반(小盤)을 중심(中心)으로 식사(食事)를 하던 당시(當時) 윗사람은 온돌방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식사(食事)를 하고 나이 어린사람은 온돌방의 위쪽에 앉아서 식사(食事)를 한다. 그리고 어른이 식사(食事)를 시작해야 어린사람들이 밥을 먹기 시작(始作)했다. 그러나 소반(小盤)이 사라진 아파트의 식탁(食卓) 생활(生活)은 핵가족(核家族)의 형태(形態)로 유지(維持)되고 있다. 아파트에서도 예전처럼 비록 온돌 방식(方式)으로 방을 뎁히지만 윗목, 아랫목의 구별(區別)은 없다. 더구나 식탁(食卓)에 둘러 앉아 밥을 먹을 때 나이의 위 아래 구분(區分)이나 선후(先後)는 없다. 다만 식사(食事)라는 행위(行爲)를 할 뿐이다. 따라서 온돌이라는 한국(韓國)의 전통적(傳統的)인 주거(住居) 구조(構造)에서 태어난 소반(小盤)은 한국인(韓國人)의 문화적(文化的) 현상(現象)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소반(小盤)이 사라진 한국(韓國) 현실(現實)에서 전통적(傳統的)인 가치(價値)의 변화(變化)는 당연(當然)하다. 한국인(韓國人)은 아파트에서 살거나 주택(住宅)에서 살거나 온돌을 사용(使用)하는 습관(習慣)은 전혀 변(變)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環境)에서 식사(食事)는 의자(倚子)에 앉아 테이블에서 하고, 손님이 방문(訪問)하여 차(茶)를 마시거나 세시풍속(歲時風俗), 관혼상제(冠婚喪祭) 등(等) 의식(儀式)이나 의례(儀禮)를 거행(擧行)할 때에는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한다. 이처럼 현대적(現代的)인 테이블과 전통적(傳統的)인 소반(小盤)의 사용(使用)이 병행(竝行)하는 이중구조(二重構造)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한국인(韓國人)의 근대적(近代的)이고 서구적(西歐的)인 취향(趣向)과 전통(傳統)을 지키면서 옛 습관(習慣)을 유지(維持)시키려는 이중구조(二重構造)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二重構造)가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할 때 지켜진 전통(傳統) 양식(樣式)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堡壘)라고 하겠다. 이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유지(維持)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소반장(小盤匠)을 국가(國家)나 자치단체(自治團體)에서 문화재(文化財)로 지정(指定) 보호(保護)하기, 작업장(作業場)을 지어주기 때문에 남아있는지, 앞으로 사라져 버릴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당분간(當分間) 이 제도(制度)가 유지(維持)되다가 전혀 현실적

(現實的),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가 없다고 하여 사라져 버릴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소반(小盤)을 사용(使用)하던 온돌이 존재(存在)하는 한 어느 정도 소반(小盤)의 명맥(命脈)은 유지(維持)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나무를 사용(使用)하여 소반(小盤)을 만드는 기술(技術)은 예나 지금(只今)이나 큰 차이(差異)가 없다. 다만 차이(差異)가 나는 것은 옛날 손이나 수동식(手動式) 도구(道具)를 사용(使用)하던 기술(技術)이 현대(現代)에는 전동식(電動式) 도구(道具)나 근대적(近代的) 도구(道具)를 사용(使用)하여 보다 현대화(현(現)代化)되었다는 사실(事實)이다.

이글은 한국(韓國) 전통(傳統) 공예(工藝) 가운데 한 가지인 소반(小盤)을 중심(中心)으로 현지(現地) 조사(調査)한 내용(內容)을 중심(中心)으로 논(論)한 것이다. 소반(小盤)의 제작(製作) 공법(工法)이나 공학적(工學的)이고 기술적(技術的)인 접근(接近)은 필자(筆者)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문제(問題)이다. 아직 충주반(忠州盤)의 기능(技能) 보유자(保有者)가 지정(指定)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現實)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곳에서 옛 충주반(忠州盤)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하루빨리 문화재(文化財)로 지정(指定)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현지(現地)조사(調査)에 협조(協助)해 주신 제보자(提報者) 여러 분들에게 감사(感謝)의 마을을 표(表)한다.

注

1)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ume 6, Micropaedia,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89. p. 28.
2) 예능민속연구실, 『대목장』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3) 최상수, 「소반」, 『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17』 동아출판사, 1989. pp. 467-468.
4) 곽종철, 「선사·고대 도자료 출토 유적의 토지 조건과 도작 생업」, 『고문화』 42, 43, 1993., 조현종, 「도작 농경의 기원과 전개」, 『한국 고대 문화의 변천과 교섭』, 서경문화사, 2000.
5) 김원룡 편저, 「벽화」, 『한국 미술 전집』, 동화출판공사, 1974.
6) 배만실, 『한국의 전통 공예 소반(小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pp. 12-17.
7) 박영규, 『목칠공예』, 솔출판사, 2005., p. 32.
8) 고전연구회 편찬, 『북역 고려사』 제 6 책, 신서원 편집부 편집, 1991., pp. 359-369.
9) 예능민속연구실, 『문헌으로 보는 고려시대 민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p. 275.
10) 예능민속연구실, 『국역 가례도감 의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p. 413, 525. 여기서는 독보상(讀宝床)이라는 명칭이 등장함.
11)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영환 글, 백지순 사진, 『칠장』 민속원, 2006., pp. 102-107.
12) 앞의글, pp. 16-39., 이건무외, 「의창(義倉) 다호리(茶戶里) 유적 발굴진전보고(I)」 『고고학지』 1, 한국고고미술연소, 1989.
13) 김영복, 「아사카와 다쿠미의 진정한 조선 사랑」, 『샘이깊은물』 1996. 10 월호, 아사카와 다쿠미, 심우성 옮김, 『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 학고재, 1996.
14)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 2005 년 자료, www. nso. go. kr., 국가 통계포털, http://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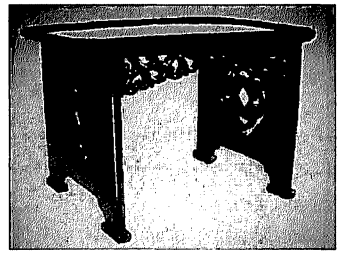
참고문헌

고전연구회 편찬, 『북역 고려사』 제 6 책, 신서원 편집부 편집, 1991.
곽종철, 「선사 고대 도자료 출토 유적의 토지 조건과 도작 생업」, 『고문화』 42, 43, 1993.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영환 글, 백지순 사진, 『칠장』 민속원, 2006.
국립민속박물관, 『목가구의 수종식별과 연륜년대』 충북대학교 연륜연구센터, 2004,
김삼기, 김희수, 『목가구』, 국립민속박물관, 2004.
김원룡 편저, 「벽화」, 『한국 미술 전집』, 동화출판공사, 1974.
김영복, 「아사카와 다쿠미의 진정한 조선 사랑」, 『샘이깊은물』 1996. 10 월호,
박영규, 『목칠공예』, 솔출판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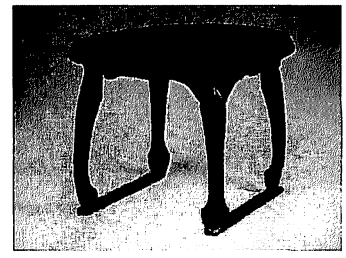
배만실, 『한국의 전통 공예 소반(小盤)』,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배만실,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아사카와 다쿠미, 심우성 옮김,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 학고재, 1996.
예능민속연구실, 『대목장』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예능민속연구실, 『문헌으로 보는 고려시대 민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이건무외, 「의창(義倉) 다호리(茶戶里) 유적 발굴진전보고(I)」 『고고학지』 1, 한국고고미술연소, 1989.
이칠룡, 『칠공연구』, 미진사, 1984.
조현종, 「도작 농경의 기원과 전개」, 『한국 고대 문화의 변천과 교섭』, 서경문화사, 2000
존카터 코벨, 김유경 편역,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 글을읽다, 2008.
최상수, 「소반」, 『동아원색 세계대백과사전 17』 동아출판사, 1989.
통계청, 인구 주택 총 조사, 2005 년 자료, www.nso.go.kr., 국가 통계포털, http://www.kosis.kr/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ume 6, Micropaedia,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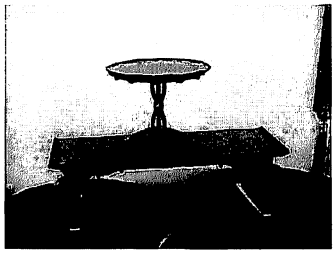
<사진 1> 나주반(羅州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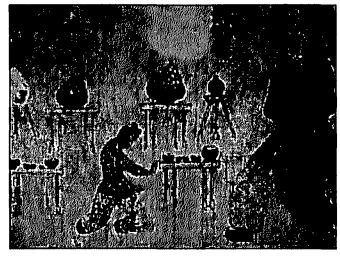
<사진 2> 해주반(海州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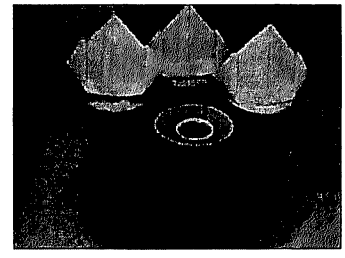
<사진 3> 구족반(狗足盤)



<사진 4> 공주반(公州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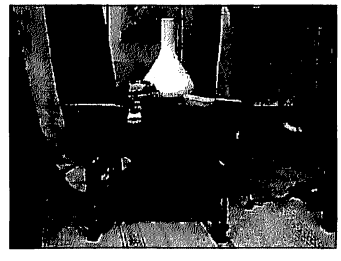
<사진 5> 무용총(舞踊塚)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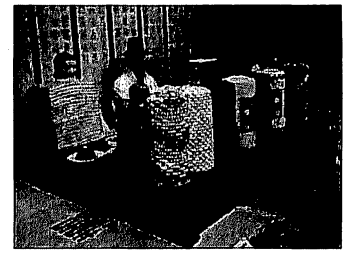
<사진 6> 삼신상(三神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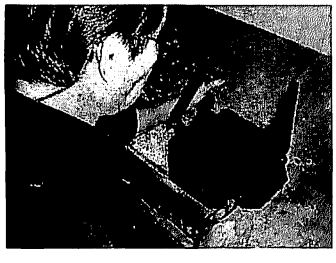
<사진 7> 백일상(百日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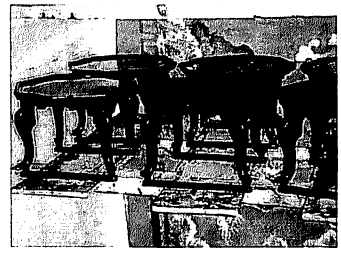
<사진 8> 합환상(合歡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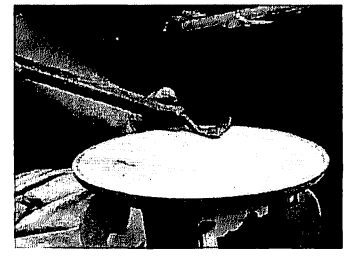
<사진 9> 환갑상(還甲床)



<사진 10> 나주반 사포질



<사진 11> 호족반(虎足盤) 칠 건조



<사진 12> 통영반(統営盤) 끌질

<사진 2> 출전 :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사진 3>,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출전 : 국립민속박물관